

현역은 그대로... 새정치 지역위원장 '무늬만 공모'

213명 확정... 전·현직 의원이 대부분 차지

광주 서울, 순천·곡성은 경선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중 213명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전·현직 의원이 대부분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무늬만 공모'였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지역위원회의 경우 경선 후보 일부가 컷오프됐다. 다시 구체되는 등 조강특위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심사로 후보는 물론 당원까지 우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조강특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도덕성·정책성·기여도·당무수행능력·공직후보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뇌물·성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경력 보유자에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2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인준이 확정된 지역위원장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경우로 대다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관심 지역구로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희철 전 의원이 경쟁한 서울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정 전 대변인에게 돌아갔고, 이부영 상임고문과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백해련 전 수원지검 검사 서울 강동갑과 경기 수원을에서 지역위원장을 차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복수 후보 공모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 북구 을은 임내현 의원, 강진·영암·장흥지역위원장에 도 황주홍 의원이 각각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서갑원 전 의원, 정표수 전 공군소장이 치열하게 붙은 순천·곡성과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진성준·한정애 의원이 맞붙은 서울 강서을,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과 허동준 전 위원장이 대결한 서울 동작을 등 나머지 33곳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광주 서울의 경우 이날 오후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1차 컷오프 후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천·곡성의 경우도 경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초 정당대회에서 출발할 정식 지도부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조강특위의 활동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공모를 실시해서 후보를 받아놓고 일방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모두 지역위원장에 선정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한 당직자는 "이런 거면 처음부터 현역 의원이 있

는 지역구는 공모를 받지 말았어야 한다"며 "공모비 50만원이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위원장 자리를 전현직 의원들이 독차지하면서 참신한 인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나아가 광주 서구을의 경우 조강특위가 일부 경선후보를 배제했다가 며칠 후 다시 구체하는 등 원칙 없는 심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은 현재 당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아쉬워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소통, 공감 여성의 힘으로!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아트홀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손필점막 퍼포먼스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라운드

주승용,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층수 등을 감안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7월 지하기둥에 균열이 발생했던 광주 북구 평화맨션 사례처럼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 의원은 "안전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층수를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제2, 제3의 평화맨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200억 초과기업 법인세 25%로 인상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인하 당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으나,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갑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 김 의원은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했다"며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황주홍 "제과점 빵에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에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공장에서 납품받은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과점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다.

황 의원은 "식품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믿음이 중요한 문제"라며 "법의 규제는 최소한이 되도록 제과점이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잘 지켜 먹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당권경쟁 본격화... 대권·당권 분리 최대 변수

전대 준비위원장에 김성곤 의원

계파·지역 안배 위원 20명 선임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전대준비위) 구성을 매듭지음에 따라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전대준비위원장에 4선의 김성곤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3선의 이상민, 최규성 의원이 부위원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여기에 김상희 김영록 김현미 윤호중 이목희 정성호(이상 재선) 김성주 배재정 윤관석 이원욱 전정희 전해철 진선미 최원식

홍의락 의원과 황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대준비위원으로 합류했다.

새정치연합은 성별, 선수별, 계파별,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 모두 20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특정 계파에 소속돼 있지 않은 김 위원장을 필두로 비노(비노무현)·중도 성향의 이상민 의원, 민평련 소속 최규성 의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단에 포함, 눈길을 끌었다.

일단 위원들도 친노(친노무현)와 비노, 범주류 등 계파 별로 적절히 안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대준비위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당대회 준비 실무 작업과 경선 룰 논의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이날 전국 246개 지

역위원장 가운데 213명을 발표하는 등 대의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 선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전대준비위 출범과 맞물려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 이날 당내에서는 '대권, 당권 분리론'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등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주자 전당대회 불출마론과 관련,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대권 주자의 전대 불출마론은 실질적으로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대의 최대 변수

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도부 경선에 있어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는 '통합 경선'과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분리 경선' 여부도 변수다.

비노(비노무현)와 중도 진영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고 분리 선거를 통해 일부 친노 인사들이 최고위원을 차지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친노 정당'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친노 진영에서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을 장악한다면 '분당'과 '신당' 창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택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주요소재점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غم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다함 NAVER 백세생활건강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백현 학과론 임진택 공법 이강일
중개법 홍희기 공시법 안규재 세법 임기원

개강 11월10일 주 후반 11월~12월 기초과정과목 강의 합니다.
성인분 인터넷 동영상수업은 무료

합격을 위한 선배강사들이 추천한 1등학원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합격을 위한 체계적인 모의고사
7월말~11월~12월 7월말~11월~12월
7월말~11월~12월 7월말~11월~12월
7월말~11월~12월 7월말~11월~12월
합격 1등은 정규 강의로만 가능합니다.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광주새롬학원에서 제 15회~제 24회 시험까지 2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야)
학원출퇴차 한달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 본원 남동구 서구청앞광주연호 2층
☎ 361-8111